제3장 음의 길이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눈보라[눈:보라] 말씨[말:씨] 밤나무[밤:나무]
많다[만:타] 멀리[멀:리] 벌리다[벌:리다]

(2) 첫눈[천눈] 참말[참말] 쌍동밤[쌍동밤]
수많이[수:마니] 눈멀다[눈멀다] 떠벌리다[떠벌리다]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신바:늬/반:신바:니] 재삼재사[재:삼재:사]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보아 → 봐[봐:] 기어 → 겨[겨:] 되어 → 돼[돼:]
두어 → 둬[둬:] 하여 → 해[해:]

다만, '오아 → 와, 지어 → 져, 찌어 → 쪄, 치어 → 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국어의 장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장단을 구별해서 발음해야 한다는 점, 둘째, 장모음의 실현 위치에 제약이 있다는 점, 셋째, 장단의 변동 현상이 있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

첫째, 장단을 구별해서 발음해야 하는 이유는 장단에 따라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 쌍이 국어에 있기 때문이다. '눈[眼]'과 '눈[雪]', '말[馬]'과 '말[言]'과 같은 단어 쌍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 장단의 차이로만 그 뜻이 구별된다. 따라서 장단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단의 구별은 국어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현재 장단의 구별이 다소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둘째, 장모음은 실현되는 위치에 제약이 있어서 원칙상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온전히 발음하도록 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1)에서와 같이 단어의 첫음절에서 장모음을 지니는 것이 (2)와 같이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의 위치에 놓이면 그 길이가 짧아진다. 즉 첫음절이 장모음인 단어가 단일어로 쓰이거나 복합어의 첫 요소로 쓰일 때에는 장모음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복합어의 후행 요소로 쓰이면 장모음 대신 단모음(短母音)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반신반의, 재삼재사, 선남선녀' 등과 같이 비슷한 요소가 반복되는 구조의 한자어에서는 첫음절이 아니라도 장모음이 실현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단어들은 첫음절과 셋째 음절이 동일한 한자로서 서로 대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음의 길이도 첫음절의 장모음을 셋째 음절에서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만 '반반[반:반], 간간[간:간], 영영[영:영], 시시비비[시:시비비]' 등과 같이 동일한 한자가 연이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장모음이 실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국어에는 장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거나 단모음이 장모음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장단의 변동 현상이 있다. (2)에서 원래 장모음을 가지던 단어가 복합어의 후행 요소가 되면서 단모음으로 바뀌는 것도 이러한 장단의 변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단의 변동은 [붙임]에서 언급하고 있다. [붙임]에서는 1음절로 된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하면서 음절이 줄어들 때 일어나는 장단의 변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제시된 예들을 보면 음절의 수가 주는 대신 남은 음절은 그 길이가 길어지는 변동을 거치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줄어들기 전의 두 음절 길이가 남은 한 음절에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1음절 용언 어간에서는 이러한 장모음화가 잘 나타나지만 '오-+-아, 지-+-어, 찌-+-어, 치-+-어'가 각각 '와, 져, 쪄, 쳐'로 실현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모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음절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장모음화는 다른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한

단어인 '사이, 아이'가 줄어든 '새, 애'의 'ㅐ'는 모두 장모음이다. 파생어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가령 '보이다 → 뵈다[뵈:다], 뜨이다 → 띄다[띠:다]' 등에서 어간과 접미사가 축약되어 한 음절로 바뀌면 역시 장음이 된다.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 — 감으니[가므니]　　밟다[밥:따] — 밟으면[발브면]
신다[신:따] — 신어[시너]　　알다[알:다] — 알아[아라]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다[끌:다] — 끌어[끄:러]　　떫다[떨:따] — 떫은[떨:븐]
벌다[벌:다] — 벌어[버:러]　　썰다[썰:다] — 썰어[써:러]
없다[업:따] — 없으니[업:쓰니]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 — 감기다[감기다]　　꼬다[꼬:다] — 꼬이다[꼬이다]
밟다[밥:따] — 밟히다[발피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리다[끌:리다]　　벌리다[벌:리다]　　없애다[업:새다]

[붙임] 다음과 같은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밀-물　　썰-물　　쏜-살-같이　　작은-아버지

이 조항은 장단의 변동 중에서도 특히 장모음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에는 앞의 제6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모음이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일 때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 조항에서는 용언 어간 뒤에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체언의 경우에는 특정한 조사 앞에서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용언 어간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음절로 된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는 '아' 또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나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용언 어간에 결합할 때 어간의 장모음이 짧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제시된 예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어미의 첫음절에 모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간의 장모음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령 '밟다'와 '알다'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어미가 결합하더라도 '밟으면[발브면]'에서는 장모음이 짧아지지만 '알면[알:면]'에서는 장모음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어미의 첫음절에 '으'가 실현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어간의 장모음이 짧아지는 현상은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뿐만 아니라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서도 나타난다. 가령 '괴다[괴:다], 뉘다[뉘:다], 호다[호:다]' 뒤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괴어[괴어], 뉘어[뉘어], 호아[호아]'에서 보듯 어간 모음의 길이가 짧게 실현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장모음이 짧아지는 현상은 일부 예외가 있다. 조항에 제시된 '끌다, 벌다, 썰다, 없다' 등이 그러하다. 이 외에 '굶다, 얻다, 엷다, 웃다, 작다, 좋다' 등도 여기에 속한다. 이 용언의 어간들은 뒤에 어떤 어미가 오든지 어간의 장모음이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1음절로 된 용언 어간 뒤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피동과 사동의 접미사는 '-이-, -히-, -리-, -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것이 결합하든지 어간의 장모음은 짧아진다. 물론 이러한 현상도 예외가 있다. 그런데 그 예외는 앞서 살핀 첫 번째 부류의 예외와 동일하다. 그래서 '끌다, 벌다, 썰다, 없다'에 피동 또는 사동 접미사가 결합한 '끌리다[끌:리다], 벌리다[벌:리다], 썰리다[썰:리다], 없애다[업:쌔다]'에서는 어간의 장모음이 그대로 유지된다. 즉 이 단어들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든 피동이나 사동의 접미사가 오든 어간의 길이가 짧

아지지 않는 것이다.

[붙임] 용언의 활용형이 포함된 합성어의 장단이 활용형의 장단과 일치하지 않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원래의 활용형은 길이가 길지만 이것이 합성어의 첫 요소로 쓰였을 때에는 길이가 짧게 발음되는 단어들이 있다. 예로 제시된 '밀물, 쏜살같이, 작은아버지'의 '밀, 쏜, 작은'이 모두 그러하다. 이 단어들이 '문을 밀 경우, 쏜 화살, 작은 손수건' 등과 같이 활용형으로 쓰일 때에는 '밀[밀:], 쏜[쏜:], 작은[자:근]'과 같이 장모음이 나타남에 비해 합성어의 첫 요소로 쓰일 때에는 짧은 모음이 나타난다. 이러한 예외적인 현상은 일부 활용형에서만 나타날 뿐, 모든 용언의 활용형이 합성어의 첫 요소로 쓰일 때 그 길이가 짧아지는 것은 아니다.